

무상급식 6년...공교육 복지 기틀 다졌다

광주지역 내년 특성학교 확대
1만 고교생 대상...교육청이 부담
지자체 지원 땀 전면 실시 가능
친환경 재료비 인상 목소리도

내년부터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완전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특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광주시의회 최종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선불리 예산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지 6년 만에 고교 무상급식까지 현실화되면서 교육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성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전국 최초~초등~특성학교까지 무

■광주 무상급식 추진 현황·계획
 (자료:광주시교육청, 단위:명)

연도	대상	학생 수	비고
2011	초	11만516	초교전체
2012	초·중	17만273	중2,3년 10월 실시
2013	초·중	16만2219	
2014	초·중	15만5286	
2015	초·중	15만66	
2016	초·중	14만2362	
2017	초·중 특성학교	14만8285	

상급식=광주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147개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당시 전체 초등학생 11만516명이 혜택을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당시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무상(無償) 복지 논쟁 속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광주는 이듬해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실시중인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늘렸고 10월부터 중 2·3학년까지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153개 초등학교(8만9883명)와 91개 중학교(5만2479명)에 이어 광주지역 13개 특성학교 학생들(1만139명)까지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성학교의 경우 초·중학교와 달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부담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전체 일반계 고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전남교육청은 6년 전인 2011년 읍 단위 이하 전체 초·중학교와 100명 이하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읍 단위 이하 모든 고교까지, 광양시의 경우 동 단위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펼치고 있다. 전체 828개 초·중·고교 중 783개 학교(94.6%)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비율로는 전국 1위다.
 ◇맛·안전 잡은 친환경 급식=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광주에서

는 2006년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토록 했고 2012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됐다. 광주교육청은 2013년부터 모든 유·초·중·고교에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한끼당 2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식자재 구입비용의 경우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한끼당 지원 비용(1인당 200원)은 몇 년째 그대로라는 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경찰 조사로 확인된 불량식품 납품업체의 학교 공급 여부와 관련, 더 이상의 공급을 막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데다, 급식 질 향상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86.3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도 한끼당 초(1인당 609원)·중(766원)·고교(692원)에 일정한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 학생 건강까지도 신경 쓰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리없는 교육 다짐
사립학교 협의회 세미나

래와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광주시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회장 박정열)는 최근 한국교육원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사진)를 열고 사학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 사립 초·중·고교 법인협의회와 사립교장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사학 고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흥성대 상산학원 이사장도 세미나에 참석,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담당하는 한국 사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협의회측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사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북초교(학생수 144명) 학생들은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다. 분교에서 분교로 승격된 뒤 별도 급식실이 마련될 때까지 10분 가량 떨어진 지산초에서 '배달'시켜 먹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특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특성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교실에서 점심 먹는 학교 광주 2곳...“급식실 필요해요”

광주지역 내년 무상급식 실시비율은 83.6%다. 전체 317개 초·중·고교 중 265개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깨끗한 급식실을 이용하는 반면, 광주 북초교와 대광여고는 교실을 급식실로 사용하고 있다.

북초교(학생수 144명)의 경우 광주지산 초 분교로 있다 최근 분교로 승격되면서 급식실을 확보하지 못한 케이스다. 급식실 설치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학생들은 교실·야외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자연 속에서 식사하는 즐거움도 있는 반면, 지산초에서 10분 가량 '배

달'시켜 먹어야 하는 점, 식사 뒤 교실에 가득찬 냄새를 참아내야 한다. 매일 북초교로 급식을 실어나르는 지산초 영양사들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니다. 대광여고는 급식 인원이 1178명에 달하지만 급식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교실 급식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배운 것 바로 써먹는 특성화 교육 만들기

광주공고 교수법 발표대회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기술을 직접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얘기다. 이날 행사에는 정밀기계·기계 시스템·전기·전자·토목·건축과 등 7개 학과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안이 선보였다.
 7개 학과 학생들도 이같은 프로그램에 맞춰 직접 작품을 개발, 제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실무 역량을 선보였다.
 이등송 교무기획부장은 "실무 따로, 현장 따로의 기존 교수·학습법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현장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 "특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지식과 현장 기술이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몸에 맞는 옷을 입듯'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대, 문화교육인력 지역 곳곳 투입


문화예술교육사 563명 배출

호남대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장 경험을 높이기 위해 '인성힐링캠프',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트힐링캠프' 등에도 참여토록 했다.
 아트힐링캠프의 경우 아트플레이와 힐링을 접목시켜 예술 감각을 익히며 자기개발과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 창의적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호남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소외지역 청소년,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실전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도 쌓고

동강대 지원 프로그램 다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들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취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취업에도 움이 되는 '스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기소개서·모의면접까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동강대가 최근 학교 학술정보원에서 마련한 취업 경진대회도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과 유사한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제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취지로,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에 따라 이뤄졌다.
 대학측은 지원자가 많다보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평가를 거쳐 50명을 우선 선발했고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을 꾸려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최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들어 22개 전 학과(3426명)에 '평생지도교수제'를 도입, 학생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졸업·취업 후 사회생활까지 맡아 지도·조언토록 한 바 있다.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도전! 골든벨'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의욕을 고취,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이벤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 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사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정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정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기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하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하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정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토지 2,911.9㎡ 건물 1,811.2㎡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씩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토지]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10,730평 담양읍에서 15분거리, 매매가 8억5천, 투자가치 최상 전원주택지 및 요양병원 적합
- ★ [토지]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임대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건물] 광주 북구 흥화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산구 80미터 도로 3층 무인텔 토지 717평 건물 835평 매매가 56억 (용28억)투자 최상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